

뉴스홈 > 종합/사회

재미 한인여성 과학자<3>, 서은숙 교수

입력일자 : 2013-11-14 (목)

저희 라디오 서울은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여성 과학자들의 스토리를 매주 월요일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매릴랜드 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미 우주항공국, 나사의 '크림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서은숙 박사를 정연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촉망받는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미 대통령상을 받고, 과학계 권위지인 네이처에 그 연구 논문이 실리는가 하면, 뉴욕 타임스가 그의 연구 업적을 보도하는 등 서은숙 교수는 미국 과학계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루이지애나 스테이트에서 물리학 박사가 된 서 박사는 매릴랜드 대학에서 포스트닥을 한 후 매릴랜드 대학 물리학 종신 교수로 몸담고 있습니다

서은숙 교수는 2천년부터 나사가 지원하는 "크림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데, 크림 프로젝트란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 에너지 입자인 우주선을 연구하는 것이 메인 미션입니다.

서은숙 박사입니다
(컷)

우주선이 지상에 도착할 때는 공중에서 상호 작용으로 쪼개져, 입자 검출이 어려워, 지상에 도착하기 전 우주로 검출기를 띄어 성분을 검출하게 됩니다.

우주에 띄우는 검출기는 풋볼 스타디움보다 더 큰, 무게 3톤의 거대 벌룬으로 지상에서 40km 높이에 띄우는데 주로 남극 상공에 띄우게 됩니다.

내년에는 벌룬 대신, 우주 정거장에 검출기를 띄울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검출기가 우주에 1천일 이상, 장기 체류할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컷)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는 작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해하는 작업으로 직결됩니다. 지구는 우리 집이고, 큰 의미에서 우주는 우리가 사는 동네입니다)

서 박사는 우주의 입자를 어떻게 측정할수 있는지, 검출기에 대한 개념을 착안한 아이디어로,1997년 미국 대통령상을 받았고, 이를 좀더 구체화 한 연구작업으로 네이처와 뉴욕타임즈에 연구 업적이 실렸습니다

우주과학은 국력을 평가름하는 지표인 만큼, 우주과학의 성과는 미국의 국가 파워와 직결됩니다

서박사가 이끄는 크림 프로젝트에는 직간접으로 백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인 과학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우수한 두뇌집단이 모인 작업에서, 기대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팀웍이 가장 중요하다고 서박사는 강조했습니다.

(컷)

정연호 기자

Copyright © 1997-2009. Radioseoul All Rights Reserved.

